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한자문제에 대하여*

박 화 리**

(e-mail : hwaripark@hanmail.net)

目 次

1. 들어가기
2. 일본의 해외진출과 국어정리통일문제
 - 2.1. 국어협회의 새로운 등장
 - 2.2. 국어학자 保科孝一의 담론
 - 2.3.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 森田梧郎의 담론
3. 한자문제
 - 3.1. 국어교육학자 平井昌夫의 한자비판
 - 3.2. 조선의 한자문제
4. 맺음말

1. 들어가기

일제강점기하의 조선의 언어문제라고 하면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을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 ‘황민화정책’의 수단으로서 언어문제를 취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본격적으로 전쟁이 확대된 1937년 이후 조선교육령(1938년개정¹⁾을 통한 국어로서 일본어의

강제가 조선어 탄압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무엇보다 당시의 언어문제를 일본어강요정책의 실태분석에 한해 온 것이라 할 수 있겠다.²⁾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종래의 연구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원의 언어문제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한일 양국에서 역사인식문제가 새로운 시각에서 전개되어지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 국민국가론, 일본제국사연구의 성과에 의해서 사회언어학, 일본근대사연구의 일부에서 근대 일본의 ‘국어’형성에 관한 연구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³⁾ 본 연구자 자신도 일본이 식민지에 보급하려고 했던 ‘국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문제관심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한 일본어교육의 실태를 근대 일본의 언어사적 측면과 연동해서 조망해 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조선에서의 한자문제를 한자제한·한자폐지라고 하는 1930년대 당시의 국자 개량주의자의 관점에 서서, 국어개량사업의 선두주자라고 할 ‘국어협회’와, 한자폐지를 주장한 대표적인 국어교육학자 히라이 마사오(平井昌夫), 그리고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인 모리타 고로(森田梧郎)의 조선인 학습자의 한자실태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조선에서의 한자문제를 일본의 국어·국자문제와 연동해서 조망해 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일본의 근대 교육사 부분에서 ‘국어’교육, 정책으로서 한자문제를 조명한 형진의(2009)의 연구는 괄목할 만하지만, 필자는 일본의 해외진출이라는 새로운 시국에 편승하여 ‘국어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당시의 국자개혁론자들의 관점에서 조선의 한자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메이지기 일본의 ‘국어’창출 과정 속에서 생겨난 국어·국자문제⁴⁾, 즉 이전에는 일본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국자문제에서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정되었다. 조선인을 「충성스럽고 선량한 일본국민」으로 육성하는 「국어(일본어)의 보급」은 전쟁확대로 시국이 급박해짐에 따라 학교 내의 일본어 보급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걸친 강제적인 「일본어상용」에 힘을 쏟게 되었다. 이런 배경으로 4월1일부터 제3차 「조선교육령」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박화리 『日本語教育の展開に関する研究—1930・40年代の韓国における日本語教授法を中心に』(2005년도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중에서, p38

2) 조선근현대사학자인 三井嵩(미쓰이 타카시)는 종래 식민지 조선의 역사와 언어문제와의 관련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일본어를 통한 지배의 측면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식민지기 언어정책, 운동사연구의 충실화를 꾀하기 위한 제언을 한다.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한글운동에 관한 연구 동향과 그 비판적 검토」 『言語文化(第11卷1号)』, 同志社大学 言語文化学会, 2008.8

3) イ・ヨンスク(1996), 安田敏朗(1997) 참조.

4) 국어로서 일본어(표준어)표기를 표음주의에 근간해서 개혁하려고 하는 메이지 이래 일본의 언어정책을 국어·국자문제라고 불린다. 이것은 말의 통일, 표준화가 필요했던 메이지국가가 정식적인 국어의 확립을 이루기 위해서 국어·국자를 새롭게 변화한 시대에 걸맞게 바꾸어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이 국어·국자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일본어학

1) 1936년 8월 취임한 南次郎조선 총독은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으로 하는 교육방침 아래서 「황국신민의 선언」 제창, 신사참배, 그 밖의 국가의레나 행사를 강제했다. 특히 1938년 2월에는 징병제의 예비도입단개로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 결국에는 3월에 「조선교육령」이 개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의지, 외국을 고려한 국어·국자문제라는 범주에서 한자의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일본어의 해외진출과 국어정리통일문제

메이지기 이후 일본에 있어서의 ‘국어·국자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왜 그것을 문제 삼는가 하는 입장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논의를 생산해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계몽’을 표방한 급진파와 보수와의 대립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도 자파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즉 달리 말하자면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⁵⁾. 여기에서 문제는 왜 ‘해결’ 또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일 텐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 가운데 하나로서 본고에서는 한자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확대에 따라 일본어가 ‘해외진출’을 하게 되고,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국어·국자문제를 다시 일본사회에서 깊게 논의하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국어개혁단체인 「국어협회」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당시의 국어·국자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국내외의 정황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어협회」의 동향과 협회 기관지인 『国語運動』에 실린 국어학자들의 담론에 주목하여 국어개량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논지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호시나 코이치(保科孝一)는 핵심적인 인물이라 할 것이다.

2.1 국어협회의 새로운 등장 (1937년)

일본 최초의 언어정책기관이었던 ‘국어조사위원회’의 멤버들이 대거 참가한 「국어협회」는 일본정부의 언어정책을 대표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단체이다⁶⁾. 1930년 1월 발족 이래로 국어애호와 언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다가 시국의 변화에 발맞추어 1937년 6월 28일 「국어협회」는 「국어애호동맹」과 「언어문제 담화회」, 이들 두 단체를 흡수·합병하여 정부

5) 小森(2000), 鈴木(2005), 安田(2006) 등 참조.

6) 국어협회 회칙 제2조를 보면 「이 모임은 국어의 정리와 개선을 꾀하고 국어를 옹호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어의 정리, 개선, 통일, 국어애호, 존중 즉 바른 일본어를 양양시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 단체를 국어협회라고 칭하고, 당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어애호와 언어문제의 이론과 실재를 다루는 것으로 일본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단체로 그 존재의 의미는 주목할 만하다.

의 ‘국어’ 정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총리대신인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⁷⁾가 회장으로, 국어심의회 회장인 미나미 히로시(南弘)⁸⁾를 부회장으로 영입하고, 8월에는 기관지 『国語運動』을 창간한다. 이것으로 메이지시대부터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국어·국자문제는 다시 새롭게 진영을 갖춘 「국어협회」를 통해서 사회진화론적인 ‘국어개량론’을 대세로 활발하게 국어운동에 주력하게 된다. 다음의 글은 회장인 고노에가 「국어의 존중 애호는 국민의 책무이다」라는 제목으로 「국어협회」의 재발족을 기념해서 한 인사말의 일부이다.

우리말 국어국자는 세계에 유래를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복잡하고 더욱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학습부담의 과중함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말할 필요까지도 없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문화의 진전,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운의 신장을 방해하지나 않을까하는 은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중략) 국어·국자정리가 오늘날 얼마나 긴요한 사업인가는 여러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⁹⁾

이처럼, 고노에 회장은 국어·국자의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인해 국운의 신장이 저해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어협회의 사업인 국어·국자의 정리가 얼마나 긴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널리 알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어협회가 재 발족된 의미를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고노에 회장의 총회 인사말은 『国語運動』 창간호 제1권 제1호에 실려 있는데, 『国語運動』은 국어협회에서 1937년 8월 1일 창간호를 개시로 매월 1회 1일에 발행되는 잡지다. 다음으로는 국어협회회장에 이어서 간친회 석상에서 행한 미나미 부회장의 인사말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미나미는 1918년에 문부성 차관, 그리고 1932년 대만총독으로 임명된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학문적 정치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한 임시 국어조사위원회회장, 국어심의회회장을 역임. 특히 지금까지 국어가 문어체, 오래된 仮名표기법, 한자가 수가 많다는 것 등 복잡해서 학습이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어를 가능한 쉽게 간명하게 가르치자고 주장하는 국자개혁론

7) 近衛文麿(このえふみまろ) (1891-1945) 大正・明治時代の 정치가·公작. 1933년 귀족원의장. 중일전쟁 전장기에 수상역임. 패전 후, 전범으로 拘引 직전에 자살.

8) 南弘(みなみひろし) (1869-1946) 동경제국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관료출신 정치가.

9) 我が国語国字が世界に其の比を見ないほど複雑にしてかあつ不規則でありますので、この学習負担の過重なることは今更申述べるまでありませんし、延いては我が文化の進展、教育の発展をはばみ、国運の伸張を妨げるに至るべきをひそかに恐れるのでございます。… (中略) 国語国字整理が今日いかに緊要な事業であるかは、多言を要せずして明であると存じます。(「国語の尊重愛護は国民の責務である」中 (p2-p3) 『国語運動』 쇼와12년 8월 1일 창간호 제1권 제1호 東京国語協会発行, 총회 인사말 중에서)

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다음 인용문은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국어협회」가 만들어진 경위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원래 그 목적이 전 국어협회나 오늘 새로 탄생한 국어협회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 단체가 합동하지 않았던 전과 비교해서 각각 그 목적하고 있는 바에서 보면 세 곳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국어의 정리, 개선, 통일을 꾀하는 것, 국어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점에서 세 곳은 공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이번에 새로운 국어협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은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¹⁰⁾

이와 같이 미나미는 국어개량사업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진 국어협회, 국어 애호동맹¹¹⁾, 언어문제담화회¹²⁾가 모여서 새로운 진용을 갖춘 강력한 「국어협회」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야스다 도시아키(安田敏朗)는 『「国語」の近代史—帝國日本と国語学者たち—』¹³⁾에서 일본에서는 「국어협회」가 발족된 1930년대 이후부터 ‘日本ローマ字会’(1921년 발족), ‘カナモジ会’(1922년 발족) 등도 합세하여 일본어의 표기·문체·어휘정리·간이화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당시 「국어협회」는 일본의 국가개혁론자들의 중심적인 활동무대였음은 분명할 것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국어협회」의 기관지인 『国語運動』에 게재된 글 가운데 호시나 코이치(保科孝一)의 언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2. 국어학자 保科孝一の 답변

본 절에서는 당시 우에다 카즈도시(上田万年)¹⁴⁾의 많은 제자 중에서 누구보

10) 固よりその目的といいたしますところは、前の国語協会と、今日の新に誕生した国語協会との間には、毫も異なるところはあります。この三団体が合同しない前に於て、各々その目的として居りましたところに三者とも共通の点がありました。国語整理、改善、統一を図ること、国語愛護、尊重をすることの二点に於ては、三者の間に共通して居ります。吾々はこの目的の為にこの度の新しい国語協会を作り上げたのであります。さして今後この目的の為に吾々は奮励努力いたしたいと存じているのであります。(「目的達成のため努力したい」中 (p6) 『国語運動』 쇼와12년 8월 1일 창간호 제1권 제1호 東京国語協会発行, 국어협회 총회 간담회 석상에서 행한 인사말 중에서)

11) 국어애호동맹은 특정의 입장에 편향 되지 않은 넓은 시야에서의 국어개량을 목표로 해서 1932년에 만들어진 단체이다.

12) 언어문제담화회는 1935년에 조직된 단체로 언어문제, 특히 기초어휘 등을 주된 연구로 한다.

13) 安田敏朗(2006), p161.

14) 우에다 카즈도시(上田万年)(1867-1937) 언어학자. 현대 국어학의 기초를 확립한 국어학자. 기존의 국어학 연구에 대해서 유럽의 언어학 연구방법을 소개. 종래의 연구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국문학史, 국어音韻, 국語史, 系統論 등의 연구를 개척. 한편으로는 국語調査委員會를 설치 (1900년. 후

다도 앞서 일본에서도 언어문제가 빠르게 정치화될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표준어 제정과 국어·국자의 정리에 앞장선 호시나 코이치(保科孝一)¹⁵⁾에 주목하고자 한다. 호시나는 문부성 촉탁으로 50년간 일본의 국어정책에 관여했으며, 유럽 유학중에 얻은 지식을 통해 평생 국어개량을 위해서 국어정책에 진력을 다한 대표적인 일본의 국어학자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호시나가 『国語運動』 1937년 8월 1일 창간호 제1권 제1호에 「국어애호정신의 배양」이라는 제목으로 국어·국자정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부분을, 특히 ‘국어’창출이라는 그의 국어사상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국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호시나의 글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들은 일찍이 국어교육에 무게를 두고 이것에 의해 민족고유의 정신을 양성하는 것에 깊이 유의하였다. 민족고유의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데 민족고유의 정신은 바른 국어에서 비로소 양성되는 것이다.¹⁶⁾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것은 즉 국어교육에서 민족고유의 정신이 성립되고 국어교육은 바른 국어에서 양성된다는 호시나의 국어사상의 논지가 잘 나타나있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바른 국어’라는 용어에 주의를 기울여 보고자 한다. 문부성 국어조사주임촉탁, 내각국어심의회간사장 등을 역임한 그의 경력에서 보더라도 호시나가 말하는 ‘바른 국어’란 아마도 국어를 정리 개선해서 표준화된 국어를 창출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특히 호시나는 우에다의 제자로서 국어를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때가 되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관여해야 한다는 국어정책의 기초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의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국어정리의 중대한 책무 중 하나인 어려운 한자문제에 대한 호시나의 관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조상으로부터 전해오는 국어를 경시하고, 외국어를 존중하

에 国語審議會로 개조 (1949)) 에 진력. 国語政策, 国語調査에 관계하였으며 후진양성에 힘쓰면서 국어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했다.

15) 호시나 코이치(保科孝一)(1872-1955) 일본의 언어정책에 오랜 기간에 걸쳐 중심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다.

16) ゆえに英・仏・独等においては、はやくから国語教育に重きを置き、これによって民族固有の精神を養成することにつかく留意している。民族固有の精神を養成してこそ國家に忠誠な民をつくることが出来るのである。しかるに、民族固有の精神は正しい国語につけて初めて養成されるのである。(「国語愛護精神の培養」中 (p8-p9) 『国語運動』 1937년 8월 1일 창간호 제1권 제1호)

는 풍습이 있다. 이것은 정말로 한탄스러운 모습이며, 이 나쁜 풍습 때문에 스스로 살아가는 힘 성장하는 힘은 대단히 훼손당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진정으로 한탄스럽다. 이 같은 폐풍을 개선하지 않는 채로 있다면 마치 일본민족의 발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7)

이와 같이 호시나는 국어를 경시하고 외국어를 존중하는 풍습이 현실에서 개선되지 않은 채로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외국어라고 말하는 것은 한자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렇듯 한자에 의존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국어의 건전한 발전에 방해를 받는다는 논리를 들어 국어를 아끼고 사랑하자는 것, 즉 바른 국어를 만들어 가자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한자문제를 통해 국어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당시 한자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상용되고 있었나 하는 부분에서 단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호시나와 같은 국자개혁론자가 주요 멤버로 활약하고 있는 「국어협회」의 기관지인 『國語運動』의 편집 후기¹⁸⁾를 살펴보았다.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한자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어려운 것은 삼가하고 차자(当て字)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2.3.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인 森田梧郎의 답론

본 절에서는 국어·국자문제를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인 모리타 고로(森田梧郎)¹⁹⁾의 『日本語』 제1권 제2호 (1941년 5월)에 실린 「국어의 역사적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시 조선에 있어서의 국어문제와 연동시켜 살펴보기로 하겠다. 무엇보다 국어·국자문제가 새롭게 부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그 속에서 국어의 정리통일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논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앞선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시나도 주목하는 한자사용의 문제에, 모리타가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는가를 확인하는 결과도 될 것이다.

다음의 글은 모리타가 국어의 정리통일 사안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간이 경과된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국어의 정리통일은 결코 지금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공적인 기관을 마련해서 조사연구에 착수하기까지도 벌써 40년이 된다. 20)

이와 같이 공적인 기관에서 조사연구에 착수한지도 벌써 40년이나 된다고 말한 것은 일본 정부가 1902년 국어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불안정한 국어(일본어)의 표기 상태를 해결하고자 국어문제에 착수한 사실에 근거를 둔 이야기일 것이다. 이 문제가 40여년이 지나도 확실한 해결을 보이지 않는 원인을 모리타는 다음 글을 통해 언급한다.

일찍이 국어문제는 전적으로 국내에 한한 것이었다. 그 정리통일은 국어 속에서 태어나 국어 속에서 성장, 국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말하자면 내지인을 위한 것이었다. 이 국어의 정리통일의 문제는 이미 메이지 초엽에 거론되어 국어조사위원회의 손에서 임시국어조사회, 더군다나 국어심의회에 넘겨졌지만 문제의 해결에는 순조로운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것은 왜일까? 문제가 내포하는 복잡성이 아마도 최대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말하자면 내부의 문제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날 사정은 현저하게 다르다. 그것은 1940년 11월, 문부성 도서국에 새롭게 국어과가 설치된 것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²¹⁾

여기에서는 국어를 정리 통일하는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국내문제로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가 설명되어 있다. 모리타는 이 문제가 40여년이 지나서도 확실한 해결을 보이지 않았던 원인을 절박함이 없었던 내부의 문제로 그

20) 承知のように、國語の整理統一は、決して今に至った問題ではない。國家が公の機關を設けて、これが調査研究に手をそめてからでも、やがて四十年になる。(『國語の歴史的現実』中(p45)『日本語』 제1권 제2호 <1941년 5월>)

21) かつて國語問題は、もっぱら國內にかぎられたものであった。その整理統一は、國語の中に生まれ、國語の中に育ち、國語の中に生活している所謂内地人のためのものであった。この國語の整理統一の問題がはやくも明治の初にとり上げられ、國語調査委員會の手から臨時國語調査會に、さらに國語審議會にわたされたながらも、問題の解決にはかばかしい前進をみせなかったのは何故であらうか。問題がいはらむ複雑性がおそらく最大の原因であったであらう。しかし、問題がいはらむ内輪の問題で、その解決に一日の急を要するほどのさし迫ったものがなかったためではなかったであらうか。今日が事情がいちじるしく違ふ。それは昨年十一月、文部省図書局に、新に國語課が設けられるに至った経緯が雄弁に物語ってくれる。(『國語の歴史的現実』中(p45)『日本語』 제1권 제2호 <1941년 5월>)

17) 由来わが国には祖先伝来の國語の輕視し、外國語を尊重する風がある。これはまことに嘆かわしい次第で、この弊風によって自己の生きる力伸びる力のはなはだしく毀損せられることに気づかないのはまことに嘆かわしい。この弊風を改めないかぎり、日本民族の發展が意のごとくならぬことを思わざるを得ないのである。(『國語愛護精神の培養』中 (p9-p10) 『國語運動』 1937년 8월 1 일 창간호 제1권 제1호)

18) 「『國語運動』の編輯については、漢字は、あまり使わないものや、むつかしいものをさけ、あて字はやめる様になります。」(『國語運動』 1942년 1월 제6권 제1호)

19) 上田万年의 또 한명의 제자이며 조선에서의 [국어] 강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낸 時枝誠記의 제자인 森田梧郎은 조선총독부 국어교육사상의 충실한 실행자·선전자로 학무국 관료 출신이다. 森田에 관한 자세한 것은 박화리(2006)(2007)를 참조.

내부의 복잡성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사정은 현저하게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내부의 문제로서는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의 국어·국자문제가 새로운 현안의 문제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를 모리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러나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오늘의 이런 것은 메이지·다이쇼기에 있었던 문제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혀 질을 달리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오늘날 국어의 정리통일 문제가 강력히 요구되는 이유는 일본어의 해외진출이라고 하는 문제를 앞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본어를 동아시아의, 아니 세계의 공통어로 삼고자 하는 커다란 이상에서 온 것은 아닐까 22)

즉, 국어정리통일문제가 강력히 요구되는 이유를 일본어의 해외진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일전쟁을 축으로 일본의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서 유인된 구체적인 현실적 요청 속에서 식민지 일본어교육을 시야에 넣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모리타는 국어문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5천만 모든 동포'의 국어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1억 안에는 국어를 상용어로 하지 않는 2천3백만 조선인과 5백만 대만인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국어문제를 취급하는 선상에서 새로운 하나의 일면이다. (중략) 오늘날 우리 국어는 오로지 내지인을 위한 국어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일본의 유력한 구성분자이며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조선인 대만인에게도 국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국어의 역사적 현실'의 일면이다. 23)

즉, 일본어는 이미 일본인만의 국어가 아니라 조선인, 대만인에게도 국어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문제를 취급할 때는 당시 일본을 구성하던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

고 있다. 바로 그것이 이번엔 새로운 국면을 맞은 국어의 정리통일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가 '내지인'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 기인하지 않고는 국어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모리타는 구체적으로 조선인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조선인에게 일본어 표기법의 학습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취급할 때는 2천3백만 조선인이 경험할 어려움도 당연히 참고해야만 한다. 24)

위와 같이, '조선에 있어서의 국어' 라고 하는 사실을 고려해서 국어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상, 모리타의 답론을 통해서 조선총독부 관료로서 국어·국자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조선에서의 일본어교육을 고려한 그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오랜 전통주의 국수적인 입장에서만 머물러 있던 이 문제가 이제는 일본어의 해외진출을 계기로 조속한 국어의 정리통일문제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그의 견해는 일제강점기하 일본어교육의 실태를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조선, 대만에서는 '국어'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國語全解常用運動(즉 전원이 항상 국어로 말하라는 뜻)'이 강제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였던 모리타는 국어보급이 최우선 목표에서 국어(일본어)교육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하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문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한자사용에 관한 논의이다.

3. 한자문제

여기에서는 국어·국자문제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한자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자의 문제는 일본어가 해외로 진출하기 이전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다. 즉 나름의 논리에 의거하여 한자를 전폐하자는 주장과,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자는 주장, 그리고 한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는데, 모리타 고로(森田梧郎)는 조선에서의 일본어 보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 한자사용에 관한 새로운

22) しかし、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今日のそれは、明治大正時代における問題の単なる延長ではないとおふことである。全く質を異にするものではもとよりない。さて今日、國語の整理統一の問題がつよ呼ばれる所以は、日本語の海外進出といふ問題を前にしてである。日本語を東亜の、いや世界の共通語たらしめよとする大きな理想からではあるまいか。(「國語の歴史的現実」中(p45)『日本語』제1권 제2호 <1941년 5월>)

23) わが國語は、かつて「同胞すべて五千万」の國語にすぎなかった。しかるに今日では、一億万の愛する國語となった。しかも、その一億の中には、國語を常用語としない二千三百万の朝鮮人と、五百万の台湾人がふくまれているのである。ここに國語問題を取り扱ふ上の新しい一つの面がある。(中略) 今日、わが國語は、ひとり内知人のために國語であるばかりでなく、新日本の有力なる構成分子である、またあらねばならぬ、朝鮮人及台湾人にとっての國語であるといふことである。これは、おほふべくない「國語の歴史的現実」の一つの面である。(「國語の歴史的現実」中(p45-p46)『日本語』제1권 제2호 <1941년 5월>)

24) 朝鮮人にとって仮名遣いの学習が困難なことはすでに多くの人によって指摘されている。されば、この問題を取り扱ふ場合には、二千三百万の朝鮮人が経験する困難も、当然参考せられるべきである。(「國語の歴史的現実」中(p45)『日本語』제1권 제2호 <1941년 5월>)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진부한 논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본어가 해외로 진출한 이후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여 제출된 담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의 담론이 왜 의미를 가지는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서의 논의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리타에 대한 검토에 앞서 히라이 마사오(平井昌夫)의 견해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3.1. 국어교육학자인 平井昌夫의 한자비판

실제로 한자에 대한 비판이 메이지유신을 전후로 활발했지만 러일전쟁 이후로는 교육·사회도 국어문체도 보수적이 되면서 주춤했다. 하지만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대동아공영권의 국어보급문체와 연동되면서부터 다시 한자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²⁵⁾. 이런 가운데 1938년 당시 국어·국자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 『国語·国字問題』²⁶⁾를 집필하여 근대일본의 국어학자들에게 강하게 지지를 받은 히라이 마사오(平井昌夫)²⁷⁾의 한자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당시의 한자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논리로서 타당한지 확인하려고 한다.

국어교육학자 출신의 히라이는 국어·국자문제를 애초에 일본의 한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서 생겨난 것으로 인식했으며 한자는 과거에는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 공적·업적 이상으로 큰 해악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또한 맹렬한 일본식 로마자론자(日本式ローマ字論者)로 불리고 있는 것과 같이 ‘한자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자개혁론자로도 유명하다²⁸⁾. 하지만 히라이가 주장하는 ‘한자폐지’는 한자를 일본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한자정리를 의미한다. 특히, 히라이는 한자문제를 비판하는 12가지의 항목을 들어서 국어·국자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²⁹⁾. 무엇보다 동음이의어 문제를 비롯하여 한자학

- 수단으로서 탄생한 문자이므로 일반적으로 볼 때 교착어(膠着語)인 일본어를 표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한자의 특색은 언어의 의미 방면을 문자화 하는 것에 주력하고 음성 방면의 표기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한자의 폐해가 나타나며 심지어 일본어를 해치는 일도 있다.
- 한자는 자수가 많은데다가 한 자 한 자의 자획이 매우 섬세하고 정교해서 쓰기가 어렵고 외우기도 힘들다. 일정한 방식의 한자 읽기가 있어도 워낙 수가 많아서 외우는 것이 곤란하다. 거기에도 한자(漢字) 한자(一字)에 읽는 법이 몇 개나 있고 그것에는 단일한 법칙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한 층 더한다. 예를 들면 生의 한자읽기를 보면 『国漢便覽』에 의하면 2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生徒 · 平生 · 生涯 · 生物 · 生花 · 千生 · 芽生 · 生糸 · 生立

- セイ · ゼイ · ショウ · イキ · イケ · ナリ · バエ · キ · オイ 등등. 또 지명이나 인명에 있어서도 사람에게 묻지 않으면 과연 맞는 건지 어떤지 결정하기 어렵다. 어쨌든 문자가 쓰여 있어도 읽지 못하면 문자로서는 낙제이다. 神代 石原 栗田 가 바로 읽을 수 있으면 대단한 것이다.
- 한자의 자획이 어려우니까 잘 못쓰거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은 상태가 빈번하여 글을 쓸 때는 일영사전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다.
 - 한자·가나혼용문에서는 문장의 중요한 부분은 한자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자가 없는 훌륭한 일본어에도 굳이 차자(借字)를 쓴다. 예를 들면 欠鯨 · 矢麈 · 流石 등이다. 한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라고 하는 한자찬성론이 이것에 의해 무너진다. 流れる石 가 어째서 サスガ 인지 통 이해가 되질 않는다.
 - ハイル · キマル · 스텝 · コナレル · アヤフヤ 등은 훌륭한 일본어지만 한자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격식을 차리는 문장에는 한자로 쓸 수 있는 표현법으로 바꾸기도 한다. (예) コナレル → 消化する 이것은 국어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건디기 어려운 일이다.
 - 어렵게 한자를 써도 잘 못 읽기 쉽다. 예를 들면 弾いて는 ハヂイテ인지 ヒイテ인지 알 수가 없다.

弾いて?	ハヂイテ	ヒイテ
止める?	トメル	ヤメル
工夫?	クフウ	コウフ
唐紙?	トウシ	カラカミ

- 일본어에서는 같은 ミル 라도 한자를 사용하면 한자 쓰는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見 · 覽 · 觀 · 看 등 모두 사용법이 중국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감박하고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면 무식하다고 폄하 당한다. 중국에서 구별하는 개념을 일본에서 일부러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때만은 무식한다고 불려진다. 한편 다음의 (예) ホソイ · コマカイ → 細い 를 보면 일본어에서 구별하는 개념을 한자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아무렇지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한자 폐지 반대론자이다.
- 한자는 자획이 섬세하고 정교해서 읽기어렵고 따라서 눈을 나쁘게 하기 쉽다. 일본은 세계 유수의 근시안국(近視眼国)이다.
-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한 타이프라이터 · 라인타입 · 몬타입 등 진화한 기계를 이용하지 못하고 인쇄·출판 신문 사업이 외국과 비교해서 참 손해보고 있다
-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면 눈으로 보면 안다고 하는 부분적 이익 때문에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가 자꾸만 만들어진다. 의회의 연설이나 라디오강연에서 동음이의어(同音

25) 安田敏朗(2006) 참조.
 26) 平井昌夫(賴阿佐夫) 『国語·国字問題』 三笠書房, 1938
 『国語·国字問題』는 「国語·国字問題予備知識」, 「国語·国字問題之歷史的展望」, 「国語·国字問題の理論」, 이렇게 3부로 구성되어있다.
 27) 히라이 마사오(平井昌夫) (1908-96) 펜네임 賴阿佐夫로 집필활동. 국어교육학자. 東京帝国大学 哲学科 출신. 로마자론자. 1939년 6월 일본좌익 로마자 운동사건에 연루돼 검거. 유물론 연구회와도 깊은 관계. 그 과정 속에서 『国語·国字問題』를 1938년에 집필. 1948년에도 『国語国字問題の歷史』를 간행하였다. 이 분야의 기본서로 알려짐. 패전 후도 소학교에서 로마자 학교교육추진에 관여. 국어국립연구소 근무 등.
 28) 土屋道雄(2005), p236.
 29) 平井昌夫(賴阿佐夫) 『国語·国字問題』 三笠書房, 1938. p221-224 (원문에도 12가지 한자비판의 이유 중에서 3번 항목이 누락되어있음)
 1. 한자는 언어학적으로 일본어를 표기할 자격이 없다. 한자는 고립어(孤立語)의 표기

습의 고통을 수반 하는 여러 경우의 문제점을 들어 한자의 해악이 일본어에 미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한자부정론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즉, 한자와 일본어의 이질성을 비교언어학적으로 분석해서 자립어인 일본어가 이질자인 한자어에 의해서 훼손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외국인인 일본어를 배우는데 방해가 된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한자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은 히라이의 한자관은 당시 조선의 한자문제를 포함한 국어교육문제를 조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3.2. 조선의 한자문제

여기서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수관으로서 또, 국어협회회원의 자격으로 『国語運動』 제6권 제1호 1942년 1월에 「한자문제」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은 모리타의 담론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조선의 국어교육문제 속에서 한자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모리타는 대다수 조선인 학습자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일본어 발음문제를 한자문제의 초점으로 맞춘다. 우선 모리타가 근본적으로 한자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한자문제는 깊게 국어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그 해결은 국어문제와 서로 어울려서 처음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국어문제와 별도로 분리해서는 단독으로 한자문제만으로 아마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³⁰⁾

이처럼 모리타는 한자문제를 국어문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은 모리타가 조선에서 행해진 전문학교 입학자 김정시험에 응시한 조선인 답안지를 가지고 조선인의 국어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 현안의 국어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려고 했던 부분이다.

‘오백 개를 넘는 작문의 답안지를 읽으면서 어법의 실수나, 말과 문자의 실수를 눈에 떠는 대로 적어두었더니 너무나 수가 많았다. 이 중에는 혹은 국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암시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는 지는 모르겠다. 31)

異義語) 때문에 반대의 의미로 들려서 생각지도 못한 회비극을 연출하기도 한다.
 12. 한자는 외국인이 일본어를 배우기에는 큰 방해(サマタゲ)가 되고 따라서 일본어가 국제적으로 이해를 얻는 길을 막는 것이 되는 것이다.
 30) ゆうまでもなく漢字の問題は、ふかく国語の世界に根をおろしているもので、その解決は国語問題と相まって、はじめてなし得るものである。国語の問題ときりはなして、単独に漢字の問題としては、おそらく永久に解決されないうであろう。(『国語運動』中(p17) 제6권 제1호 <1942년 1월>)

다시 말하면 국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닥의 실마리를 조선인의 국어교육 속에 나타난 문제점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모리타의 의도가 엿보이는 글이다. 다음을 보면 구체적으로 모리타 자신도 말하듯이 수험생이 대다수 조선인이라는 점에서 역으로 한자문제의 해결을 갈구하는 모습도 느껴진다.

여기에서는 겨우 한자를 다루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정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빈약한 자료가 한자문제 해결에 뭔가 도움이 되리라고 더 더구나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험생의 대다수가 조선인이라는 점에서 이 작은 보고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³²⁾

즉, 학습자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둔 외지에서의 일본어교육문제를 출발점으로 해서 근본적인 국어문제를 생각하자는 모리타의 의견이다. 다음은 모리타가 작문의 답안지를 읽어보고, 대다수 조선인 학습자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발음의 문제점 때문에 한자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표1>은 모리타가 조선인 수험생의 답안지에서 찾아낸 실수의 유형을 한자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³³⁾

<표1>

정답	오답	오답유형
余裕(よゆう)	余有(よゆう) ×	동음이의어 문제
亢奮(こうふん)	興奮(こうふん)	동음이의어 문제
意志(いし)	意思(いし)	동음이의어 문제
問題(もんだい)	問体(もんたい) ×	발음문제(탁음-청음)
独特(どくとく)	特々(とくとく) ×	발음문제(탁음-청음)
次代(じだい)	次第(しだい)	발음문제(탁음-청음)
元来(がんらい)	完来(かんらい) ×	발음문제(탁음-청음)

위의 <표1>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답의 유형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동음이의어 문제와 조선인 특유의 탁음을 청음으로 발음하는 청탁음 문제를 모리타는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亢奮(こうふん)’는 마음이 상기되는 것임에 비해 ‘興奮(こうふん)’는 자극을 받고 신경이 날카로워짐

31) 五百をこえる作文の答案をよんでいくうちに、語法のあやまりや、言葉や文字のあやまりを、目につくままに書きとめておいたら、おびただしい数に上がった。この中には、あるいは国語問題の解決に一つの方向を暗示するものがふくま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国語運動』中(p17) 제6권 제1호 <1942년 1월>)
 32) ここにはわずかに漢字をとりあげるにすぎない。それもほんの一部分にすぎない。このとはい資料が、漢字問題の解決に、何かの示唆を与えようとはさらさら思わない。しかし受験者のおうかがが朝鮮人である点に、この小さな報告も何かの意味をもつであろう。(『国語運動』中(p17) 제6권 제1호 <1942년 1월>)
 33) 『国語運動』中(p17-p18) 제6권 제1호 <1942년 1월>

이고, ‘意志(いし)’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인데 비해 ‘意思(いし)’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인데, 이와 같은 오답이 동음이의어 문제의 대표적인 경우로 예시되어 있다. 또한 ‘問題(もんだい)’를 ‘問体(もんたい)’로 쓴 것은 모리타의 지적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조선인은 주로 탁음을 청음으로 하는 특유의 발음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겠다. ‘独特(どくとく)’는 특별하게 다르다는 독특이라는 글자를 ‘特(とく)’로, 또 ‘次代(じだい)’가 ‘次第(しだい)’로 되어 뜻이 바뀐다. ‘元来(がんらい)’가 ‘完来(かんらい)’로 元이 完으로 바뀐 것은 がん을 かん으로 발음하는 청탁음의 오류이다. <표1>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실수는 모리타가 다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선인에게 한자문제의 근본적인 실제일 지도 모른다.

그들이 곤란해 하는 청탁의 발음문제와 얽혀있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예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자의 문제는 조선인에게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 것이다. 34)

위와 같이 지적하는 모리타의 언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한자문제가 고질적인 조선인들의 발음 문제를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³⁵⁾. 이처럼 조선인에게 있어서 한자문제는 동음이의어의 혼동과 청탁음의 혼란이 야기되는 발음의 문제로 이를 조선인 학습자의 이중의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모리타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다음은 <표2>와 같은 어휘들을 예로 들어서 과도한 한자사용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표2>

書物を紐とく	其 ^こ ら ^の 其 ^の て	それにも兼 ^か はず	急 ^い しんだ
堪 ^た へづ	敢 ^あ くまで	返 ^か って(却 ^か って—の意)	帰 ^か って(却 ^か って—の意)
夙 ^し ぐに	起 ^お たらず	何 ^な ければならぬ	端 ^は 々と
下 ^{くだ} れない	最 ^も である		

왜 이렇게 해서 까지 한자를 쓰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한자를 외워서 쓰기까지 그들이 겪어야 하는 마음의 고통을 생각해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³⁶⁾

앞에서 언급했던 발음의 문제는 물론이고 과도한 한자 학습부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조선인 학습자들의 고통스러운 국어교육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한자폐지를 주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자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에서 확인해 보자.

그렇게는 말해도 본인은 한자폐지를 주창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우리 국어에 차지하는 한자의 중요한 지위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필요이상으로 한자를 존중하는 사상은 국어교육을 방해하고 국어의 보급을 방해하고 있는 사태에 분노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한자문제 해결에는 무엇을 하든지 이 사상-필요이상으로 한자를 존중하는 사상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³⁷⁾

모리타는 필요이상의 한자존중사상의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한자존중사상에서 오는 폐해는 국어(일본어)교육을 방해하고 그것은 곧 국어(일본어)보급을 방해한다는 논리이다. 그 예를 식민지 조선인의 경우를 들어 일본인들에게도 고통스러운 한자문제가 더더구나 외국인인 조선인 학습자가 대상이 될 때는 조선인이기에 수반되는 이중의 학습고통이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이상 본고에서는 호시나 코이치를 비롯하여 조선총독부 관료인 모리타 고로 등 일본어교육과 관련된 국어학자들의 담론을 중심축으로 해서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지·외국을 포함한 「국어·국자문제」라는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국어와 한자문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당시 표준화된 「국어」가 존재 하지 않은 채로 조선 등지에서 일본어가 「국어」로 교육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국어개량운동의 계기로 삼고 특히 한자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국자개혁론자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34) 彼らが困難とする清濁の発音にからんでいることはおうべくもない。これらの例で考えさせられることは、漢字の問題は、朝鮮人にとって二重の意味をもっているだろうことである。(『国語運動』中 (p17) 제6권 제1호 (1942년 1월))

35) 박화리 「일제강점기하 조선에 있어서의 언어문제 고찰」 『同日語文研究』 제21집, 2006.2 p126-p127 논문 참조, 森田가 제시한 조선인들의 발음의 문제 즉, 탁음을 청음으로 또 청음과 단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학적으로 의사소통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36) なぜこうまでして漢字をつかいたがるのであろうか。私どもは、こうした漢字をあてるまで彼等がなめたがらう心の苦しみを察してやるべきではあるまいか。(『国語運動』中 (p17) 제6권 제1호 (1942년 1월))

37) そうはいっても、稿者は漢字の廃止をとえざるものではさらさらしない。わが国語にせよ漢字の重要な地位は十分みとめるが、必要以上に漢字を尊しとする思想が、国語教育のさまざまな弊になり、国語の普及をはばんでいる事象にいきどおり感するのである。漢字問題の解決には、何をあいてもこの思想—必要以上に漢字を尊ぶ思想を清算しなければならぬのではなからうか。(『国語運動』中 (p17) 제6권 제1호 (1942년 1월))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조선의 한자문제는 국어교육의 큰 짐이었으며 조선인들의 학습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국자개혁론자들에게도 오랜 세월 개선하지 못한 채 남겨진 국어간이화문제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논의는 당시 조선과 일본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었던 「한자제한」의 문제를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종래의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미하며, 소위 ‘국어·국자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기도 하다. 다만, 국자개혁론자에만 한정해서 검증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메이지 이래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 주류였던 국어개혁과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에 우선 큰 의미를 두고 개혁비판파의 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국어문제논쟁사’에 대한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 싶다.

【参考文献】

- イ・ヨンスク(1996) 『「国語」という思想：近代日本の言語認識』 岩波書店
 熊谷明泰(2004) 『朝鮮総督府の「国語」政策資料』 関西大学出版部
 小森陽一(2000) 『日本語の近代』 岩波書店 (p105-114)
 佐藤由美(2000) 『植民地教育政策の研究』 竜溪書舎
 鈴木貞美(2005) 『日本の文化ナショナリズム』 平凡社新書 (p82-103)
 田中克彦(2001) 『言語からみた民族と国家』 岩波書店
 多仁安代(2006) 『日本語教育と近代日本』 岩田書院 (p115-131)
 土屋道雄(2005) 『国語問題論争史』 玉川大学出版部 (p236)
 平井昌夫(1938) 『国語・国字問題』 三笠書房 (p221-224)
 丸谷才一(1999) 『国語改革を批判する』 中公文庫
 安田敏朗(1997) 『帝国日本の言語編制』 世織書房
 安田敏朗(1999) 『「言語」の構築- 小倉進平と植民地朝鮮』 三元社
 安田敏明(2001) 『植民地のなかの「国語学」』 三元社
 安田敏明(2006) 『「国語」の近代史-帝国日本と国語学者たち-』 中公新書 (p117, p161)
- 민병찬(2005) 「일본어 가타카나어의 표기사적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24집.p23-38
 민병찬(2008)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일본어표기법에 대하여」 『일본학보』 제74집.p47-60
 박화리(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語常用政策」 『日本学報』 第58輯.p.133-146
 박화리(2004) 「山口喜一郎の日本語教授法を中心に」 『日本学報』 第60輯.p.83-96
 박화리(2005) 「山口喜一郎의 일본어교수법에 대한 고찰」 『일본문화학보』 제27집.p.65-80
 박화리(2006) 「일제강점기하 조선에 있어서의 언어문제고찰」 『동일어문연구』 제21집. p.117-131
 박화리·민병찬(2006) 「일제강점기 교과서 개정에 대한 일고찰」 『일본문화학보』 제30집. p.113-129
 박화리·민병찬(2007) 「일제강점기 일본어교과서 속의 桃太郎」 『어어교육』 제41집.p.3-20
 박화리(2007) 「日本の国語政策と教育認識の変化について」 『日本学報』 第71号.p.25-38
 형진의(2009) 「近代日本の〈国語〉教育と漢字政策」 『일본문화학보』 제42집.p.43-57

要 旨

本稿は、1937年の日中戦争以後朝鮮における日本語教育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一環として、国語学者として知られる保科孝一や朝鮮総督府学務局官僚であった森田梧郎などの〈漢字問題〉についての談論を中心に検討し、それのもつ歴史的な意味を探ってみたものである。とりわけ、標準化された「国語」が存在しないまま、朝鮮などの地で日本語が「国語」として教育された際に起こった問題について、日本語を母国語としない外地・外国を含めた「国語・国字問題」という側面から捉えてみた。

具体的には、国字改革論者が日本語の海外進出をきっかけにして〈漢字問題〉の改善を求めた声を確認し分析したわけであるが、本稿を通じて、当時朝鮮の〈漢字問題〉は朝鮮人学習者の苦痛は言うまでもなく、国字改革論者らにとっても長い間解決できないまま残されていた問題の一つとして、「国語教育」においての大きな負担であったことを改めて明らかにした。

なお、本稿では、逆説的であるが、朝鮮における〈漢字問題〉をめぐる議論についての検討を通じて、国語改良運動の方向性に対する指標を示したつもりである。このような論点は、当時朝鮮と日本で殆んど同時多発的に提起された「漢字制限」の問題を、同じ観点から捉えてきた従来の研究に対する問題提起を意味するものでもある。言ってみれば、「国語・国字問題」に対する新しい観点からのアプローチが必要ではないかという提言につなが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国語・国字問題、国語改良運動、国字改革論者、日本語教育、漢字問題、日本語の海外進出

투 고 : 2009. 11. 30
1차 심사 : 2009. 12. 12
2차 심사 : 2010. 01. 09